

2018년 6월 28일

KIWOOM DAILY

|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| Strategist/Market 서상영 02) 3787-5241/ehdwl@kiwoom.com

나스닥, 차익실현 및 무역분쟁 여파로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-2.47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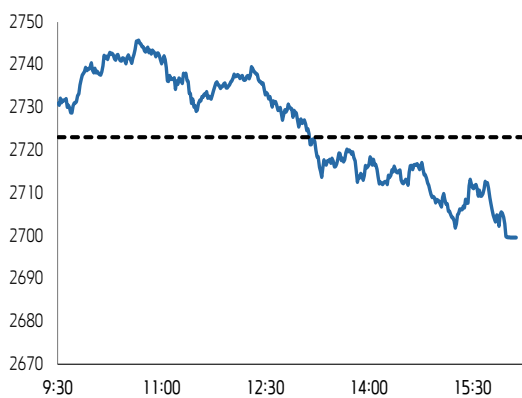
미 증시 하락 요인

유럽증시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힘입어 BP(+3.35%), 테크닉 FMC(+5.41%) 등 에너지주가 상승 주도. 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중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제한과 관련 “투자 제한은 중국만 겨냥한 게 아니다” 라고 언급 하자 상승 출발. 더불어 국제유가 또한 급등 한 점도 상승 요인. 그러나 오후 들어 앤서니 케네디 미 연방 대법원 판사의 은퇴 발표와 무역분쟁 관련 협상 불투명 우려 제기로 하락 전환(다우 -0.68, 나스닥 -1.54%, S&P500 -0.86%, 러셀 2000 -1.68%)

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무역분쟁 이슈가 시장을 지배 했으며, 채권시장의 움직임은 무역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반영. 장 초반 미 행정부 관계자는 “정부의 관세 부과 관련 행정 명령 보다는 현재의 법률을 적용해 기술 유출을 막을 것이다” 라고 발표. 이 결과에 대해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 명령을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무역분쟁 격화 가능성을 제한. 반면, 오후 들어 무역 분쟁 관련 협상이 진행 될 수 있으나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매물 출회.

여기에 앤서니 케네디 미 연방 대법원 판사 은퇴도 부담. 케네디 판사는 1988 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 된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나, 종종 진보적인 사안에 손을 들어줬던 인물. 따라서 케네디 판사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보수적인 인물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. 지난 2017 년 2 월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. 이 결과 보수 5 명, 진보 4 명으로 구성. 그런 가운데 온건 보수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가 은퇴를 발표.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진보 성향의 루스 긴즈버그,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은퇴를 하게 되면 보수 성향 판사가 7 명으로 미국의 보수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. 이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은 향후 반이민 정책, 무역협상, 헬스케어 등에서 보수화된 대법원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

S&P500 일중 차트

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Global Indices

지수	종가	D-1	지수	종가	D-1
KOSPI	2,342.03	-0.38	홍콩항셱	28,356.26	-1.82
KOSDAQ	826.69	-0.57	영국	7,621.69	+1.11
DOW	24,117.59	-0.68	독일	12,348.61	+0.93
NASDAQ	7,445.09	-1.54	프랑스	5,327.20	+0.87
S&P 500	2,699.63	-0.86	스페인	9,658.60	+0.22
상하이종합	2,813.18	-1.10	그리스	767.91	-0.13
일본	22,271.77	-0.31	이탈리아	21,557.91	+0.65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

반도체 업종 하락 주도

GE(+1.60%)는 투자의견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 했다. 21세기 폭스(+2.35%)는 디즈니(-0.29%)와의 합병 통과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. 엑손모빌(+1.33%), 코노코필립스(+2.08%), EOG 리소스(+3.55%)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급등에 힘입어 상승 했다. 듀크에너지(+0.93%), 넥스테라 에너지(+0.79%) 등 유틸리티 업종은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 했다.

반면, MS(-1.55%), 알파벳(-1.38%), 아마존(1.81%), 넷플릭스(-2.25%) 등 FANG 기업들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. 길리어드사이언스(-2.29%), 바이오젠(-1.37%) 등 바이오 업종도 동반 하락 했다. JP모건(-1.54%), BOA(-1.05%) 등 금융주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약세를 보였다. 한편, 마이크로소프트(-4.27%), AMAT(-3.04%), 브로드컴(-1.76%) 등 반도체 업종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이슈가 여전한 가운데 매물이 출회되었다. 이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.47% 하락 했다.

주요 ETF

ETF 종류	등락률	ETF 종류	등락률
원유시추업체 ETF	+1.37%	대형 가치주 ETF	-0.41%
에너지섹터 ETF	+2.52%	중형 가치주 ETF	-0.74%
소매업체 ETF	-1.50%	소형 가치주 ETF	-1.30%
금융섹터 ETF	-1.24%	배당주 ETF	-0.26%
기술섹터 ETF	-1.36%	변동성 ETF	+5.70%
소셜 미디어업체 ETF	-2.49%	대형 성장주 ETF	-1.14%
인터넷업체 ETF	-2.01%	중형 성장주 ETF	-1.53%
리츠업체 ETF	-0.28%	소형 성장주 ETF	-2.02%
주택건설업체 ETF	-1.11%	신흥국 고배당 ETF	-1.62%
바이오섹터 ETF	-2.04%	신흥국 저변동성 ETF	-1.42%
헬스케어 ETF	-0.85%	하이일드 ETF	-0.25%
곡물 ETF	-0.73%	물가연동채 ETF	+0.33%
반도체 ETF	-2.45%	Long/short ETF	+0.05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US Sector Index

S&P 500	Close	D-1	D-5	D-20
에너지	558.58	+1.34%	+0.73%	-0.79%
소재	361.23	-0.36%	-1.10%	-1.41%
산업재	599.95	-0.79%	-2.60%	-5.17%
경기소비재	862.22	-1.29%	-3.59%	+2.07%
필수소비재	528.97	-0.26%	+0.65%	+2.45%
헬스케어	962.74	-0.92%	-2.21%	+0.14%
금융	437.95	-1.26%	-3.34%	-3.60%
IT	1,205.57	-1.45%	-4.38%	-1.44%
통신	145.71	+0.03%	+0.57%	-0.73%
유틸리티	263.26	+0.58%	+3.33%	+2.56%
부동산	199.87	-0.28%	+1.46%	+2.48%

자료: 블룸버그, 키움증권

한국 주식시장 전망

반등 기대

MSCI 한국 지수는 1.15% MSCI 신흥 지수도 1.92% 하락 했다.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(-1,349 계약) 여파로 1.05pt 하락한 300.50pt 로 마감 했다. NDF 달러/원 환율 1 개월물은 1,122.80 원으로 이를 감안하면 달러/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

미 증시는 오후 들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의 은퇴로 미 연방 법원이 더욱 보수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낙폭이 확대되었다.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협상 가능성이 있으나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도 하락 요인이었다. 전일 한국 증시는 장 막판 무역분쟁 이슈로 하락 했기에 미 증시 하락 요인은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

더불어 미 연방 대법원 관련 이슈는 지난 2017 년 2 월의 고서치 대법관 지명 경우처럼 단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, 시장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. 한편, 국제유가가 중동 리스크에 이어 미국 원유재고 급감에 힘입어 3% 넘게 상승한 점은 우호적이다. 또한 무역분쟁 우려 완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국 증시가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한국 증시 반등 가능성을 높인다.

다만, 미 증시에서 실적 기대속에 상승하던 기업들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을 감안, 한국 증시 또한 일부 종목에 대한 차익실현 욕구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.

주요 경제지표 결과

미국 내구재 수주 감소

미국 5 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0.6% 감소 했다. 이는 자동차 수주 급감에 따른 결과다. 운송을 제외한 수주 또한 0.3% 감소 했다.

미국 5 월 점정 주택판매지수는 전월 보다 0.5% 하락한 105.9 로 발표되었다.

미국의 5 월 상품수지는 648 억달러 적자로 발표되었다.

상품 및 FX 시장 동향

국제 유가 급등세 지속

국제유가는 EIA(미 에너지 정보청)가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를 통해 지난주 원유재고가 989 만 배럴 감소 했다고 발표하자 급등 했다. 한편, 가솔린은 116 만 배럴, 정제유는 2 만 배럴 증가 했다. 더불어 미 국무부가 모든 국가들은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하며, 이를 어길 시 해당 국가도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도 오늘도 영향을 주며 상승세를 이어갔다. 이와 함께 캐나다 원유 생산 업체에 정전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부 원유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 또한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.

달러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격화 우려감이 부각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. 더불어 유로화 약세도 달러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. 이는 할리 데이비슨 사태에 트럼프 대통령이 격하게 반응을 보임에 따라 EU 와의 무역 분쟁 우려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추정한다. 한편,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1%대 약세를 보였다. 무역분쟁 우려감이 일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, 여전히 협상 가능성이 불투명한 데 따른 결과다. 더불어 미국 대법원의 보수화가 더욱 진전을 보임에 따라 반이민 정책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줬다.

국채금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이슈가 여전한 가운데 하락 했다. 더불어 대법원의 보수화로 향후 정치 불확실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 또한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. 한편,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“너무 빠르게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성장에 위험을 줄 수 있다” 라며 금리인상 기조에 비판을 가한 점도 영향을 줬다.

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. 구리는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. 여타 비철금속도 혼조세로 마감 했다.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.76%, 철근은 2.11% 상승 했다.

주요 상품	증가	D-1(%)	D-5(%)	주요 통화	증가	D-1(%)	D-5(%)
WTI	72.76	+3.16	+10.73	Dollar Index	95.321	+0.68	+0.21
브렌트유	77.62	+1.72	+3.85	EUR/USD	1.1559	-0.76	-0.11
금	1,256.10	-0.30	-1.44	USD/JPY	110.23	+0.15	-0.12
은	16.237	-0.58	-0.89	GBP/USD	1.3119	-0.80	-0.40
알루미늄	2,176.00	+0.86	+0.46	USD/CHF	0.9969	+0.58	+0.07
전기동	6,692.50	-0.31	-1.19	AUD/USD	0.7341	-0.72	-0.37
아연	2,876.00	+1.27	-3.97	USD/CAD	1.3355	+0.35	+0.34
옥수수	373.25	0.00	-0.67	USD/BRL	3.8688	+1.76	+2.56
밀	488.50	+1.14	-2.15	USD/CNH	6.6171	+0.53	+2.10
대두	889.00	+0.17	-2.36	USD/KRW	1117.60	+0.25	+1.13
커피	117.45	-0.21	+0.69	USD/KRW NDF 1M	1122.80	+0.47	+1.31

10년물 금리	증가(%)	D-1(bp)	D-5(bp)	10년물 금리	증가(%)	D-1(bp)	D-5(bp)
미국	2.824	-5.29	-11.52	스페인	1.350	-3.90	+10.90
한국	2.575	-3.30	-3.70	포르투갈	1.833	-3.80	+9.60
일본	0.039	+0.10	0.00	그리스	4.004	-7.60	-32.80
독일	0.321	-1.90	-5.60	이탈리아	2.806	-7.90	+26.30